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ICC JEJU의 재무성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김 상 식

2016년 8월

ICC JEJU의 재무성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도교수 김 봉 현

김 상 식

이 논문을 회계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김상식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16년 8월

Financial performance and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ICC JEJU

Sang-Sik Kim

(Supervised by professor Bong-Hyu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6.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2장 이론적 배경	3
제 1절 컨벤션센터 건립목적 및 현황	3
1. 고부가가치산업	3
2. 대한민국의 컨벤션산업	4
3. 자치단체별 지원현황 및 향후전망	4
제 2절 컨벤션센터 건립목적 및 현황	5
1. 경제적 효과	5
2. 사회, 문화적 효과	5
3. 정치적 효과	5
4. 관광적 효과	6
제 3장 경제적 파급효과의 이론적 배경	7
제 1절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의 및 유형	7
1. 컨벤션산업의 정의	7
2. 컨벤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의 중요성	8
3. 제주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선행연구	8
제 4장 ICC JEJU 재무성과 분석	10
제 1절 연도별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분석	10

제 2절 ICC JEJU 경영분석	22
1. 매출액 추이분석	22
2. 손익 추이분석	23
3. 연도별 차입금 현황	24
4. 연도별 차입금 의존도 현황	25
5. 주요 경영분석	26
제 5장 MICE 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28
제 1절 컨벤션시장 현황	28
1. ICC JEJU 개관이전의 컨벤션 현황	28
2. ICC JEJU 개관이후의 컨벤션 현황	28
제 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산	29
1. 2012년 이전의 지역경제 직접파급효과 계산방식	29
2. 간접파급효과 계산식	29
3. 2013년 이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산방식	30
4. 각종 승수에 대한 의의	30
제 3절 2013년 이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32
1. 2013년 지역경제 직접파급효과(Meeting & Convention)	32
2. 2013년 지역경제 직접파급효과(Incentive)	32
3. 2013년 지역경제 직접파급효과	33
4. 2013년 지역경제 총파급효과(Meeting & Convention)	33
5. 2013년 지역경제 총파급효과(Incentive)	34
6. 2013년 지역경제 총파급효과	35
7. ICC JEJU 개관이후 행사개최 실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	36

제 6장 제주 MICE 발전을 위한 ICC JEJU의 역할 및 향후방향	37
제 1절 제주의 MICE 시장 및 해외 사례	37
1. 입지현황	37
2. 싱가포르 사례	37
제 2절 제주의 MICE 발전을 위한 ICC JEJU의 역할	40
1. 경쟁력을 갖춘 환경개선	40
2. 컨벤션뷰로 역할의 재정립	40
3. ICC JEJU의 재무문제 해소	40
4. 수익사업 추진	41
제 3절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영개선	43
1. 내국인 면세점 운영	43
2. 앵커호텔 운영을 통한 사업다각화 실현	43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조직 통폐합	44
제 4절 ICC JEJU의 자구노력	45
1. 정부의 MICE 용. 복합 육성방안 정책과 공조	45
2. 제주지역 특화사업 육성	45
3. MICE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수립	45
제 7장 결론	47
제 1절 ICC JEJU의 향후과제	47
1. 제주의 MICE 발전을 위한 향후방향	47
2. 연구의 의의	47
제 2절 시사점	48
참고문헌	49

< 국문 초록 >

2000년 ASEM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의 무역센터와 결합 하였으나 제주도내 대규모 컨벤션시설이 없어서 유치가 결렬된 적이 있어,

1996년 8월 1일 광복 50주년 및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에서 전문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제안함에 따라 제 3섹터 방식에 의한 지금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탄생 하였다.

당시 컨벤션시설의 건립을 제기함과 동시에 여러 차례 설명회 등을 거친 후 1997년 컨벤션센터 부지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528억원의 현물출자와 456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창립자본금 984억원을 시작으로 20여 차례 유상증자를 통하여 현재 1,666억원의 자본금인 제주도내 최대자본금 회사로 거듭 태어났다.

그러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과정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시설규모가 축소되는 등 내부 진통을 겪다가 2003년 개관하게 되었으나 개관이후의 경영상황은 회의장 임대료 이외의 수익원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안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도민 특히 주식모집에 참여한 많은 주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인한 순기능은 상상을 초월한다.

첫째 국제회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식회사로서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재무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된 다양한 수익사업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즉,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단순한 주식회사의 경영논리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시설로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 Abstract >

The ASEM in 2000 was proposed to be hosted in Jeju Province. Despite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Trade Center in Seoul, the event was hosted elsewhere due to lack of convention facilities in Jeju. The need of professional meeting facilities was then realized and resulted in the launching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Jeju (ICCJEJU) on August 1st, 1996. Originally planned to be built on a three-secter basis, the current ICCJEJU stand today at the Jungmun Tourist Complex.

After several approaches and presentations for a convention center, in 1997, the Korean Tourist Organization made a total investment of 98.4 Billion Korean Won which launched the beginning of ICCJEJU. Over 20 times of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today, ICCJEJU has a total capital stock 166.6Billion, the largest in Jeju.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center, however, the IMF was announced in Korea which caused the decrease of the center size. Although ICCJEJU was able to opened in 2003, several stock holders and the Jeju public was not very optimistic of the outcome of the center. In reality, as the center's only profit model was based on the space rental services, ICCJEJU was not able to devise any profit.

Howev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JEJU's potential is much more than what one may expect.

The first example is the image that it creates from hosting international meetings.

Secondly, the ripple effects from hosting diverse events results in positive economical outcomes.

Therefore, perceiving ICCJEJU as a corporation, the current study will analyze the current financial results and propose a solution based on the initial plan for ICCJEJU with more than one profit model. Furthermore,

analysis on the ripple effects will be made. Through this analysis, future direction of ICCJEJU will be suggested.

Thus, ICCJEJU should not be evaluated only as a corporation through management theory but also as a Indirect Social Facility.

제 1장 서 론

2003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라 함)가 개관하기 이전의 제주지역의 MICE 산업은 극히 제한적이고 미약한 수준이었지만, 제주는 지정학적 위치상 동북아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아울러 천혜의 자연경관과 독특한 전통문화 등이 보존되고 있어 리조트 관광지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국제회의의 최적지로서의 구비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제주는 타원형의 섬으로서 공항, 항만시설이 발달되어 접근이 용이한 반면, VIP 경호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장소로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평화의 섬”, “신비의 섬”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1990년대 들어서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 정상회담 개최, 李鵬(리펑) 중국총리 방문, 江澤民(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방문, 클린턴 미 대통령 정상회담 개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 정상회담 개최와 2000년대 들어서는 부시 전 미국대통령 방문, 제주평화포럼 노무현 전 대통령 방문이 있었고 2010년 한.아세안 정상회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아세안 정상들이 함께 정상회담이 개최된바 있다. 또한 2016년 5월에 개최된 제주 평화포럼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방문하는 등 제주는 이미 세계정상회담의 메카로 자리매김 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제주 특히 중문관광단지는 우리나라 제일의 휴양지로서 숙박, 접근성, VIP경호 등 정상회의 및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지로서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주도를 국제회의 거점지역으로써 컨벤션산업을 육성 . 발전시키고, 최첨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필요성에 따라 대규모 국제회의 시설 건립계획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1994년에 수립되었으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 중문관광단지내에 컨벤션 부지를 포함시켰고 아울러 토지소유주인 한국관광공사가 현물출자하여 지금의 ICC JEJU가 건립된 것이다.

사실 컨벤션센터 건립의 촉매제는 2000년 ASEM 유치경쟁의 실패함에 따른 것

이다. 당시 ASEM 한국유치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관광, 숙박 및 주변 여건이 타 지역보다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ASEM 유치운동의 실패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에 전문 국제회의 시설이 없다는 사실이 근본적이 유치실패 원인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ASEM을 준비해 왔던 열기와 제주도민의 결집된 뜻을 모아 도민주 공모를 통하여 세계 유일무이한 제 3섹터 형태인 ICC JEJU가 탄생한 것이다.

ICC JEJU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잉여금으로 도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여 도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카지노, 면세점, 한라산케이블카 등 수익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 계획된 수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물론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ICC JEJU로 인한 컨벤션산업과 MICE 산업을 포함한 제주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본 연구는 ICC JEJU를 단순한 수익성 논리로 평가하기 보다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기여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서 본 연구를 통해서 컨벤션산업이 MICE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MICE 업계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컨벤션산업이 MICE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ICC JEJU가 주식회사로서의 기능을 다함으로서 주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재탄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컨벤션센터 건립목적 및 현황

1. 고부가가치 산업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참가하는 국가 간의 교류 및 협력이 증대 되면서 각종 국제행사를 통한 개최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국제회의 산업이 여타 관광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국제행사에 참가한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컨벤션 개최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로 직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인 경우 ICC JEJU가 설립된 후 전국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건립 또는 증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가적으로 컨벤션시설의 포화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시설 포화상태로 인한 가동률 하락이 예상되지만 전시 및 국제회의 규모는 점차 대형화 추세에 있어 ICC JEJU도 MICE 산업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대한민국의 컨벤션센터 현황

우리나라인 경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컨벤션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현황으로 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대한민국의 컨벤션센터 현황

구분	전시실		회의실		대회의실	
	면적(m ²)	갯수	면적(m ²)	갯수	수용인원	형태
ICC JEJU	2,586	1	6,926	11	4,300	극장식
서울 COEX	36,027	4	10,358	54	6,500	극장식
부산 BEXCO	41,548	19	4,961	23	2,800	극장식
대구 EXCO	11,617	3	5,930	12	3,500	교실식
고양 KINTEX	53,540	6	7,791	23	2,000	교실식
김대중 컨벤션센터	10,590	2	5,490	10	3,000	교실식
대전 DCC	2,520	1	7,382	24	2,500	극장식
송도 컨벤시아	8,426	1	4,175	10	2,000	극장식
경주 HICO	6,273	2	3,421	13	3,500	극장식

3. 자치단체별 지원현황 및 향후전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컨벤션센터 시설만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수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인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BEXCO는 부산시, 대구 EXCO는 대구시로부터 연간 약 35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광주시로부터 ICC JEJU는 제주도로부터 연간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대전인 경우는 운영비 전액을 대전시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다. 컨벤션 산업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인 시설증축에 따라 포화상태에 따른 시설 가동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시 및 국제회의의 규모는 점차 대형화 추세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를 반영할 때 ICC JEJU도 경쟁력을 갖춘 시설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절 컨벤션센터의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외국인 컨벤션참가자 1인당 평균 소비액은 3,285달러로 일반 외래관광객의 평균소비액 1,064달러보다 약 3배 높으며, 체재일수는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약 7.4일인 반면 일반 관광객들은 약 5.2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회의는 동시에 여러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지역에서 참가한 회의 참가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일반관광객들의 파급효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회의 참가자들 대부분은 가족을 동반하는 추세에 증가함에 따라 컨벤션 개최 이전부터 관광효과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비수기를 고부가가치 산업인 컨벤션산업으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사회, 문화적 효과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인지도가 향상되고 천혜의 관광자원은 물론 독특한 제주의 각종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의 효과는 물론 새로운 관광 수요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지는 독특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언론 및 각종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전략을 통하여 컨벤션 행사 유치 이전부터 실질적인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 창출 및 시민의식의 국제화를 기할 수 있다.

3. 정치적 효과

국제행사는 행사의 성격상 다양한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참석하며 또한 참석하는 회의 참가자들 대부분은 각계각층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국제행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을 떠난 민간 외교로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관광적 효과

일반적으로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가족 동반형이 많으므로 많은 수의 외래 관광객 유치 효과가 발생함으로 이로 인한 체류일수 연장 및 소비지출 확대효과를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비수기에 대형 국제회의 및 이벤트 유치를 함으로서 자동적으로 관광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제 3장 경제적 파급효과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의 및 유형

1. 컨벤션산업의 정의

컨벤션(컨벤션산업)의 정의(한국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2012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보면,

첫째, 컨벤션이란 대내외 참가자들이 어떤 상호의 공통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 따라서 광의의 컨벤션산업은 국제회의 뿐만 아니라 박람회, 전시회, 이벤트 등 각종 국제행사를 포함하는 산업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컨벤션산업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회의”는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행사(각종 세미나, 토론회 및 전시 회 등)로서 대통령령으로서 그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를 보면 우선 “국제회의산업”은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고 “국제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국제회의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 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등을 말한다.

넷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MICE 산업(MEETING회의, INCENTIVE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을 정의하고 있고 컨벤션을 “아이디어 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토론, 정보교환, 사업 등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UIA(Unoi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기준에 부합하는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 기타회의를 말하며, Meeting보다 규모가 크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UIA 기준에 따른 정의를 보면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로 총 참가자 수가 50명 이상인 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주최되거나 후원되지 않더라도, 국내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참가국 수 5개국 이상, 총 참가자 수 250명 이상이거나 전시회를 동반하는 경우(인원 상관없음), 참가 외국인 비율 40% 이상, 회의기간 2일 이상”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의로 정의하고 있다.

2.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의 중요성

컨벤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의 중요성(한국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2012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의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컨벤션산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 왔으며, 2000년대 들어 컨벤션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특히, 컨벤션산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화획득을 통한 국제수지개선 및 무역거래 활성화 국가위상 제고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셋째, 따라서 컨벤션산업이 국가나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전시컨벤션의 유치, 전시컨벤션개최로 인한 타당성 평가, 투자예산의 적합성 및 각종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컨벤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넷째, 일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경제기반모델(Economic Base Model), 소득지출모델(Income Expenditure Model), 산업연관모델(Input-Output Model)이 있다.

3. 제주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의 선행연구

제주도의 MICE 산업은 회의산업을 포함한 관광산업으로 국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시산업은 지리적 특성으로 대규모의 물류비, 전시수요자의 부제 등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반면 관광지의 장점을 이용한 리조트형

컨벤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향은 이미 중앙정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발표한 경제적 파급효과 특히 고용유발 효과 등
간접파급효과는 가능한 배제하고 제주의 독특한 실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직접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제주의 MICE 시장은 ICC JEJ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주식회사로서의 ICC JEJU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4장 ICC JEJU 재무성과 분석

제 1절 연도별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분석

- 2003년 재무상태표(표 3-1)

(단위 : 천원)

과목	금액	비고
(1)당좌자산	2,751,388	
(2)재고자산	14,780	
1. 유동자산	2,766,168	
(1)투자자산	256,367	
(2)유형자산	159,782,532	
(3)무형자산	68,074	
2. 비유동자산	160,106,973	
자산총계	162,873,141	
(1)유동부채	15,571,003	
(2)비유동부채	8,899,746	
부채총계	24,470,749	
(1)자본금계	139,125,210	
(2)결손금	-720,888	
(3)자본조정	-1,930	
자본총계	138,402,392	
부채와자본총계	162,873,141	

- 2003년 손익계산서(표 3-2)

(단위 : 천원)

과목	금액	비고
1. 매출액	971,987	
2. 매출원가		
3. 매출총이익	971,987	
4. 판매 및 일반관리비	7,832,950	
인건비	1,068,759	
수도광열비	591,982	
용역비	1,307,190	
감가상각비	3,250,132	
회의행사비	523,107	
기타	1,091,780	
5. 영업이익	-6,860,963	
6. 영업외수익	544,877	
7. 영업외비용	799,549	
8. 경상이익(손실)	-7,115,635	
9. 법인세전순이익	-7,115,635	
10. 당기순이익(손실)	-7,115,635	

- 2003년 주요재무정보

2003년은 ICC JEJU 개관(2003.03.21)후 첫 결산기로서 매출액은 회의장 임대료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해로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반면에 비용구조를 보면 건물이 준공함에 따른 수도광열비 59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대형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 기계, 전기, 미화 및 보안 등은 외부업체와 건물종합위탁관리용역계약(1,307백만원)을 체결하여 현금지출 단일계정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고,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 감가상각비 3,250백만원은 건축물이 준공할때까지 발생된 건설비가 건설중자산 계정이 건물, 구축물, 비품인 본계정으로 계정분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다. 감가상각비는 건물 및 구축물은 50년, 비품은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이 감가상각비는 ICC JEJU로서는 매년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재정상태를 보면 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액 150억원과 관광진흥기금 차입금 85억원으로 부채에 대한 경영압박이 시작된 해라고 할 수 있다.

자본금 139,125백만원 현황을 보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포함한 제일교포 및 도민들이 출자한 금액으로서 1997년 창립당시 자본금 45,650백만원을 시작으로 2003년말까지 19차례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개관이전까지 공사비를 기성에 따라 지급하였고 유휴자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으로 운영 하였으며, 2002년까지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64억원이었으나 2003년 71억원이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개관 첫해부터 자본을 잠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2004년~2007년 재무상태표(표 3-3)

(단위 : 천원)

과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당좌자산	1,551,777	6,346,987	21,481,632	14,834,913
(2)재고자산	21,141	26,278	20,589	12,705
1. 유동자산	1,572,918	6,373,265	21,502,221	14,847,618
(1)투자자산	147,552	267,650	146,493	149,152
(2)유형자산	172,019,819	168,757,332	149,338,753	150,386,016
(3)무형자산	51,056	34,037	17,018	
2. 비유동자산	172,218,427	169,059,019	149,502,264	150,535,168
자산총계	173,791,345	175,432,284	171,004,485	165,382,786
(1)유동부채	591,790	2,703,206	2,385,773	5,203,447
(2)비유동부채	19,028,264	20,088,190	18,857,144	15,273,929
부채총계	19,620,054	22,791,396	21,242,917	20,477,376
(1)자본금계	161,601,220	166,601,220	166,601,220	166,601,220
(2)결손금	-7,422,024	-13,949,864	-16,829,184	-21,685,342
(3)자본조정	-7,905	-10,468	-10,468	-10,468
자본총계	154,171,291	152,640,888	149,761,568	144,905,410
부채와자본총계	173,791,345	175,432,284	171,004,485	165,382,786

- 2004년~2007년 손익계산서(표 3-4)

(단위 : 천원)

과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 매출액	2,315,273	2,148,929	3,005,486	3,517,502
2. 매출원가		136,858	90,354	449,022
3. 매출총이익	2,315,273	2,012,071	2,915,132	3,068,480
4. 판매및일반관리비	8,538,714	8,396,745	8,800,641	8,352,487
인건비	1,158,460	1,040,494	1,240,315	1,394,562
수도광열비	681,495	679,564	610,152	658,847
용역비	1,586,447	1,587,781	1,499,903	1,429,619
감가상각비	3,968,428	4,090,513	4,115,526	3,309,257
기타	1,143,884	998,393	1,334,745	1,560,202
5. 영업이익	-6,223,44	-6,384,674	-5,885,509	-5,284,007
6. 영업외수익	1,926,518	1,059,302	5,210,143	5,267,521
7. 영업외비용	2,404,193	1,202,466	2,203,953	4,839,672
8. 경상이익(손실)	-6,701,116	-6,527,838	-2,879,319	-4,856,158
9. 법인세전순이익	-6,701,116	-6,527,838	-2,879,319	-4,856,158
10. 당기순이익(손실)	-6,701,116	-6,527,838	-2,879,319	-4,856,158

- 2004년~2007년도 주요재무정보

2004년은 개관 2년차로서 개관연도인 2003년보다 매출액이 크게 증가 하였으나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전년대비 적자폭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은 여전히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고 2006년은 앵카호텔 부지 매각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36억원이 발생하여 적자폭이 줄어들었지만 영업을 통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연도 손익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매출은 다소 신장 하였으나, 회의장 임대료와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고 전년도 영업외수익인 유형자산처분이익 효과로 2007년 손실폭은 더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8년~2011년도 재무상태표(표 3-5)

(단위 : 천원)

과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당좌자산	10,716,158	11,640,269	11,074,769	3,285,138
(2)재고자산	35,949	46,022	75,077	84,028
1. 유동자산	10,752,107	11,686,291	11,149,846	3,369,166
(1)투자자산	100,072	109,099		489,611
(2)유형자산	147,475,946	144,533,912	159,160,622	139,026,010
(3)무형자산			560,360	
2. 비유동자산	147,576,018	144,643,011	159,720,982	139,515,621
자산총계	158,328,125	156,329,302	170,870,828	142,884,787
(1)유동부채	6,194,435	9,473,542	22,397,786	9,194,239
(2)비유동부채	11,829,351	8,886,996	14,581,257	3,447,780
부채총계	18,023,786	18,360,538	36,979,043	12,642,019
(1)자본금계	166,601,220	166,601,220	166,601,220	166,601,220
(2)결손금	-26,286,413	-28,621,988	-32,698,967	-36,347,984
(3)자본조정	-10,468	-10,468	-10,468	-10,468
자본총계	140,304,339	137,968,764	133,891,785	130,242,768
부채와자본총계	158,328,125	156,329,302	170,870,828	142,884,787

- 2008년~2011년도 손익계산서(표 3-6)

(단위 : 천원)

과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 매출액	2,831,013	6,893,269	6,772,399	7,304,379
2. 매출원가	369,933	3,227,021	3,589,325	3,506,103
3. 매출총이익	2,461,080	3,666,248	3,183,074	3,798,276
4. 판매및일반관리비	8,141,475	7,915,203	7,939,310	7,790,348
인건비	1,442,822	1,374,029	1,536,891	1,542,148
수도광열비	578,144	578,305	482,770	522,450
용역비	1,510,373	1,424,391	1,328,305	1,307,788
감가상각비	3,210,500	3,119,751	3,148,661	3,187,933
기타	1,399,636	1,418,727	1,442,683	1,230,029
5. 영업이익	-5,680,395	-4,248,95	-4,756,23	-3,992,07
6. 영업외수익	3,066,860	3,510,030	2,189,672	2,633,980
7. 영업외비용	1,987,534	,596,649	1,499,944	2,290,925
8. 경상이익(손실)	-4,601,069	-2,335,574	-4,066,508	-3,649,017
9. 법인세전순이익	-4,601,069	-2,335,574	-4,066,508	-3,649,017
10. 당기순이익(손실)	-4,601,069	-2,335,574	-4,066,508	-3,649,017

- 2008년~2011년도 주요재무정보

2008년 매출액은 다소 줄어든 반면 제주도로부터 시설물 유지와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조금은 영업외 수익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으로서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9년은 회의장 임대료와는 별도의 사업인 식음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년 대비 매출액이 2배 이상으로 큰 폭으로 상승 하였으며 제주도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수입(영업외 수익)이 2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액이 23억원으로 감가상각비 범위 이하로 감소하여 추가 차입 없이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여전히 영업외 수익인 보조금수입이 필수적으로 따라 주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하루속히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운영수익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010년 영업실적은 2009년 대비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보조금 수입이 전년 20억원에서 2010년 11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적자폭이 증가하였다. 2011년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 입점으로 인한 임대수입 11억원 증가 하였으나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2년~2015년도 재무상태표(표 3-7)

(단위 : 천원)

과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당좌자산	2,893,076	2,584,846	2,017,246	2,864,561
(2)재고자산	95,476	101,242	114,003	153,367
1. 유동자산	2,988,552	2,686,088	2,131,249	3,017,928
(1)투자자산	324,671	921,302	895,090	894,552
(2)유형자산	135,981,953	158,502,142	155,828,540	153,533,405
(3)무형자산			6,532	26,165
2. 비유동자산	136,306,624	159,423,444	156,730,162	154,454,122
자산총계	139,295,176	162,109,532	158,861,411	157,472,050
(1)유동부채	7,458,073	6,985,891	6,002,694	5,915,941
(2)비유동부채	3,141,391	2,330,341	1,608,160	1,252,351
부채총계	10,599,464	9,316,232	7,610,854	7,168,292
(1)자본금계	166,601,220	166,601,220	166,601,220	166,601,220
(2)결손금	-37,895,040	-13,797,452	-15,340,195	-16,286,994
(3)자본조정	-10,468	-10,468	-10,468	-10,468
자본총계	128,695,712	152,793,300	151,250,557	150,303,758
부채와자본총계	139,295,176	162,109,532	158,861,411	157,472,050

- 2012년~2015년도 손익계산서(표 3-8)

(단위 : 천원)

과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 매출액	12,841,511	10,054,393	10,902,062	11,941,880
2. 매출원가	6,946,370	5,137,333	5,443,499	6,117,015
3. 매출총이익	5,895,141	4,917,060	5,458,563	5,824,865
4. 판매 및 일반관리비	8,318,908	8,310,373	8,252,113	7,889,697
인건비	1,772,529	1,896,088	1,863,283	1,676,995
수도광열비	574,781	538,350	556,284	531,031
용역비	1,321,456	1,284,104	1,451,194	1,389,838
감가상각비	3,144,165	3,124,443	2,730,376	2,684,831
기타	1,505,977	1,467,388	1,650,976	1,607,002
5. 영업이익	-2,423,767	-3,393,314	-2,793,550	-2,064,832
6. 영업외수익	2,261,620	1,782,582	1,886,502	1,529,732
7. 영업외비용	1,384,908	689,503	635,693	411,699
8. 경상이익(손실)	-1,547,055	-2,300,235	-1,542,741	946,799
9. 법인세전순이익	-1,547,055	-2,300,235	-1,542,741	-946,799
10. 당기순이익(손실)	-1,547,055	-2,300,235	-1,542,741	-946,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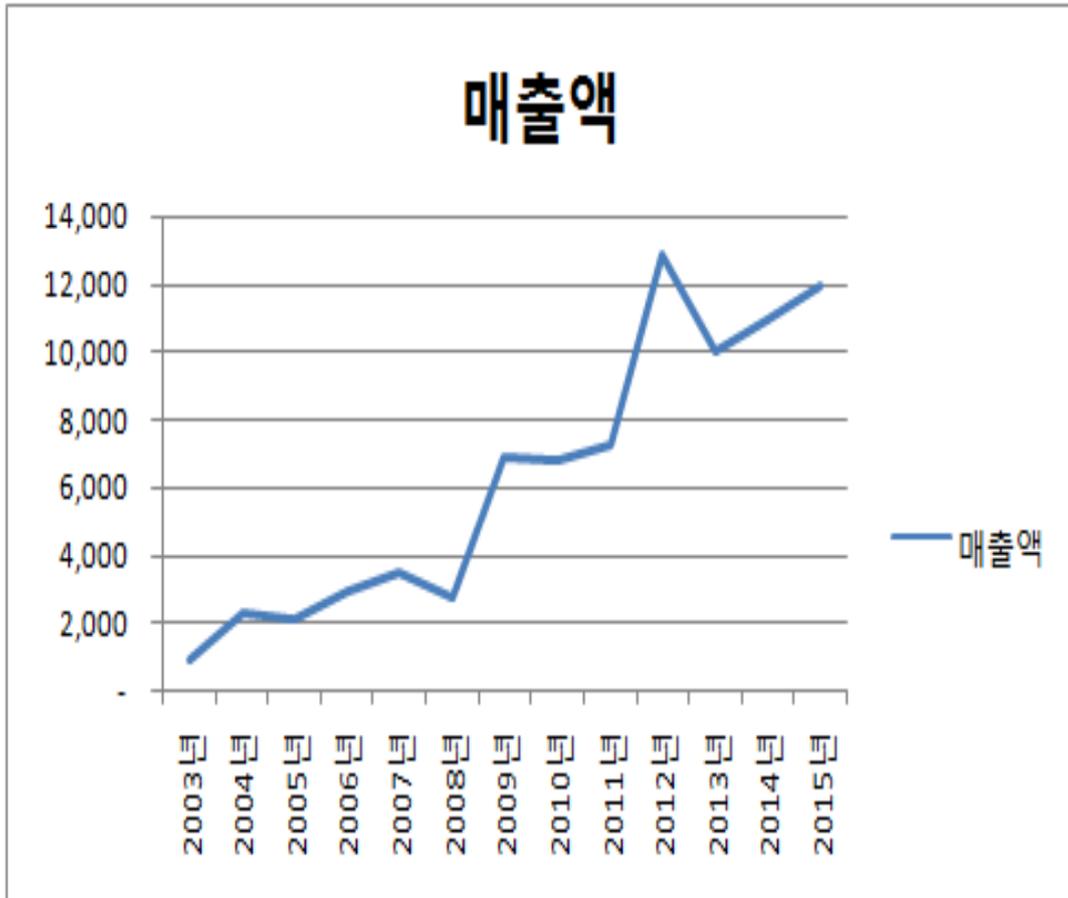
- 2012년~2015년도 주요재무정보

2012년에는 대형국제행사인 WCC 총회 등으로 인한 매출액 및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적자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인 경우 국가적인 대형 행사인 WCC 총회를 위하여 각종 시설보조금을 통한 자본적지출 증가와 보조금수입(영업외수익)이 증가하여 경영의 효율을 기하는 해였으며 2013년은 WCC 총회와 같은 대형 국제회의행사가 없으나 식음사업 및 PCO 사업의 안정적인 매출로 전체 매출 1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탈피를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인 경우는 매출액 증가 및 자산재평가를 통한 감가상각비의 축소(4억원 수준) 로 인하여 적자폭이 감소하였으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라 자산재평가 차익으로 인한 적자폭 감소로 여전히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은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지만 매출액 증가대비 손익 폭이 뚜렷이 줄어들어 긴축경영을 통하여 당기순손실을 10억 미만으로 축소한 해로서 꾸준한 매출액 증가 등을 통하여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를 감안할 경우 자체운영은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 되었다고 분석 할 수 있다.

제 2절 ICC JEJU의 경영분석

1. 매출액 추이분석(그림 3-1)

(단위 : 백만원)



2. 손익 추이분석(그림 3-2)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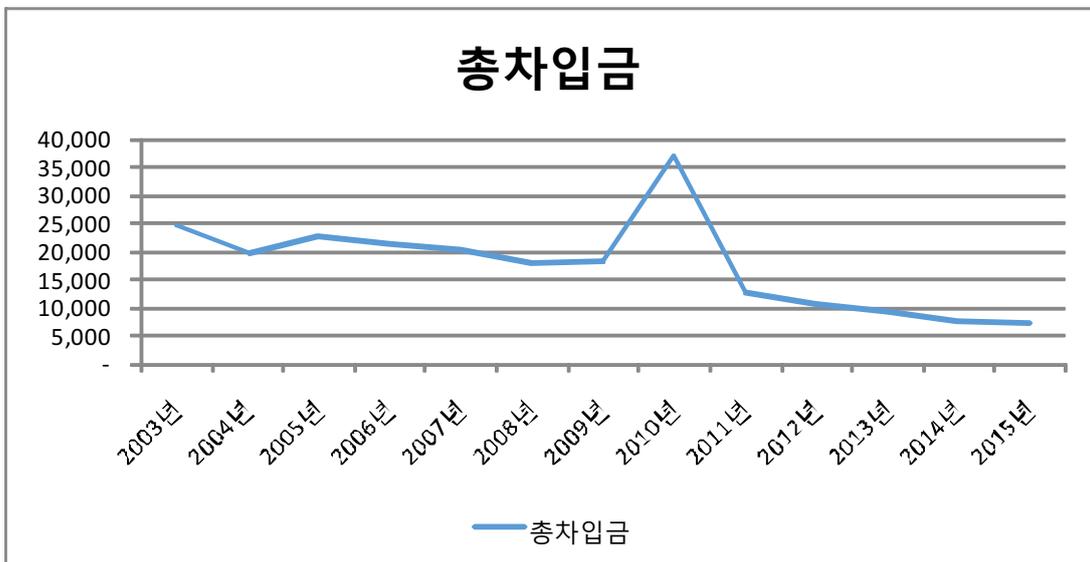


3. 연도별 차입금 현황(표 3-9)

(단위 : 백만원)

연도	차입금	비고
2003년	24,470	
2004년	19,620	
2005년	22,791	
2006년	21,242	
2007년	20,477	
2008년	18,023	
2009년	18,360	
2010년	36,979	
2011년	12,642	
2012년	10,599	
2013년	9,316	
2014년	7,610	
2015년	7,168	

(그림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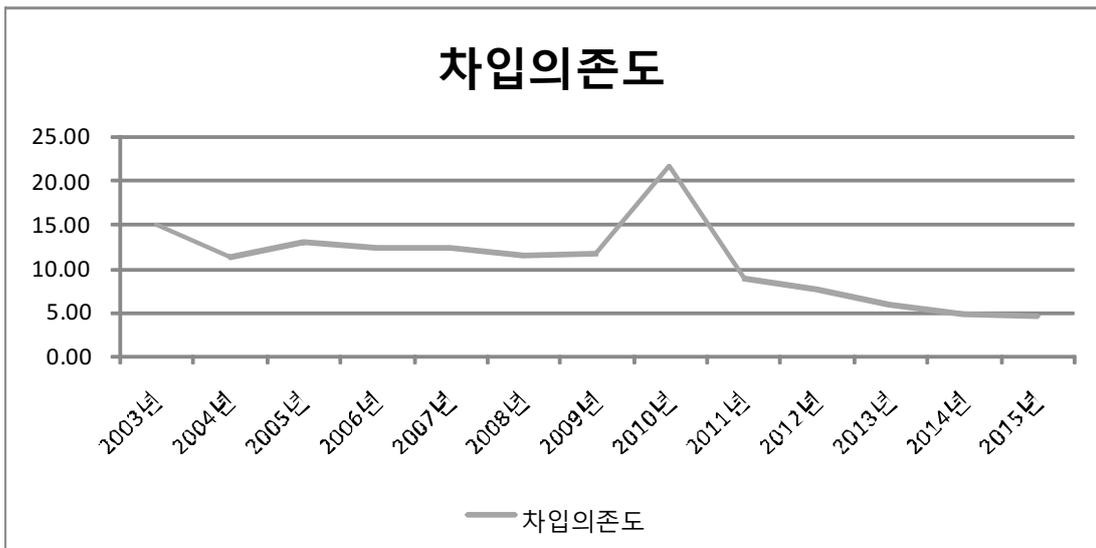


4. 연도별 차입금 의존도 현황(표 3-10)

(단위 : 백만원,%)

연도	차입금	자산총계	차입금의존도	비고
2003년	24,470	162,873	15.02	
2004년	19,620	173,791	11.29	
2005년	22,791	175,432	12.99	
2006년	21,242	171,004	12.42	
2007년	20,477	165,382	12.38	
2008년	18,023	158,328	11.38	
2009년	18,360	156,329	11.74	
2010년	36,979	170,870	21.64	
2011년	12,642	142,884	8.85	
2012년	10,599	139,295	7.61	
2013년	9,316	162,109	5.75	
2014년	7,610	158,861	4.79	
2015년	7,168	157,472	4.55	

(그림 3-4)



5. 주요경영분석

ICC JEJU의 주요 경영분석을 매출액, 차입금, 당기순손실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매출액을 보면 호텔을 포함한 컨벤션센터의 주 매출구성은 회의장 임대료, 식음사업, PCO, PEO, 유희공간 임대, 카지노 등 여러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나 ICC JEJU인 경우는 개관초기년도의 매출은 대부분 회의장 임대료로 구성되어 전체 매출액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식음사업을 직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상당부분 매출신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03년 개관당시 매출액 972백만원에 비하여 2015년 11,942백만원으로 12년 동안 약 12배 가량 신장 하였다. 이는 제 2의 컨벤션시설 증축 없이 개관당시 컨벤션시설로의 매출임을 감안할 경우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컨벤션센터의 주 소득원인 식음사업은 개관초기에 적자보전을 감수하면서까지 외부 케이터링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상당부분 적자보전을 하는 등 많은 진통을 겪었으며, 2007년부터 국제회의 기획업인 PCO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위탁으로 운영했던 식음사업을 직영사업으로 전환하여 매출액을 2배 이상 신장 시켰다

그리고 2011년부터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국인면세점 임대료가 발생함에 따라 매출액이 큰 폭으로 확대 되었고 이 밖에도 각종 직영매장 및 수수료매장 입점 등을 통하여 현재 수준의 매출수준까지 끌어 올려 왔다.

둘째, 차입금 현황을 보면 당초 ICC JEJU 신축계획 시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현재의 부영호텔부지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후 대우건설에 공사비잔금 약 150억원과 호텔부지를 상호 현물출자 방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우건설에서 호텔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대우건설 도산 등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은행 차입을 통하여 공사비 잔액을 지급함에 따라 상당히 높은 차입금이 발행 하였다.

그 후 2010년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앵카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호텔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 하였지만 호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환매특약에 의해 호텔부지를 재매입하기 위하여 추가 차입이 발생함에 따라

상당부분 차입금에 대한 압박이 가중된 해이기도 하다.

결국 2011년부터 개인주주 매입자금으로 유보 했던 유휴자금으로 일정부분 차입금을 해소 하였으며, 만기 도래되는 차입금을 차차 해소해 나감으로서 2015년 총부채가 약 71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셋째, 당기순손실 변동 추이를 보면 2003년 개관당시 당기순손실액 7,115백만원에서 2015년 당기순손실액 947백만원 수준까지 큰 폭으로 축소 되었으나 여전히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다행히 2012년부터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적자금액이 유지되고 있어 운영비 차입 없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ICC JEJU는 주식회사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적자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각종 수익사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 5장 MICE 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제 1절 컨벤션시장 현황

1. ICC JEJU 개관 이전의 컨벤션 현황

2003년 ICC JEJU 개관 이전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의 대부분은 호텔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500명 이상의 대규모 국제회의는 사실상 어려워 국내 주요 개최지는 서울, 제주, 부산,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이중 서울지역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2. ICC JEJU 개관 이후의 컨벤션 현황

ICC JEJU의 개관과 함께 1,000명 이상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MICE 지원 등으로 서울 COEX, 부산 BEXCO, 대구 EXCO, 일산 KINTEX, 광주 KDJ 컨벤션센터, 최근에는 경주의 HICO 등이 개관 또는 시설확충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산(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준)

1. 2012년 이전의 지역경제 직접파급효과 계산방식

1인당 지출액(표 4-1)

구분	내국인(천원)	외국인(천원)	비고
숙박비	202	808	
쇼핑비	111	444	
회의등록비	87	348	
식음료비	71	283	
유흥비	57	227	
관광비용	49	195	
교통비	25	99	
기타	6	26	
지출액 합계	608	2,430	

* 계산예시

연간 회의참가자수 : 100,000명(내국인 30,000명, 외국인 70,000명)

인 경우 지역경제 직접파급효과 1,883억원

. 내국인 : 30,000명* 608천원 = 18,240,000천원

. 외국인 : 70,000명*2,430천원 = 170,100,000천원

2. 간접파급효과 계산식(표 4-2)

구분		금액(억원)	계산식	비고
직접생산효과(A)		1,883		
간접 파급효과	지역총생산파급효과(B)	2,523	A*1.34	
	총소득효과(C)	656	B*0.25	
	부가가치창출효과(D)	1,034	B*0.41	
	지방세입 파급효과(E)	63	B*0.025	
	고용유발효과(F)	43	B*0.017	
	간접파급효과	4,319		

3. 2013년 이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산방식(제주도 및 JCVB)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산정 기준은 1997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전 명칭 : 한국관광연구원)이 컨벤션산업의 파급효과 산정 기준에 의해 적용하여 왔으나 2012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컨벤션뷰로(JCVB)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2012년 말 용역보고서가 확정되어 동 2013년부터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분석한 지역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한 차이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표 4-3)

구분	2012년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년이후 (제주컨벤션뷰로)	비고
분야별	통합	정부/공공, 기업, 협회/학회, 인센티브, 기타	
참가자별	2개 분류 (외국인, 도외내국인)	3개 분류 (외국인, 도외내국인, 공급자)	

※ 1인당 참가자 지출항목으로는 숙박비, 쇼핑비, 회의등록비, 식음료비, 유흥비, 관광비용, 교통비, 기타

4. 각종 승수에 대한 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산을 위한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 취업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간접세유발승수 등으로 구분하며, 첫째 생산유발승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 간접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승수가 1.08403의 의미는 1백만원이 소비될 때마다 직. 간접 효과를 통하여 1,084,030원의 생산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의 의미하며, 둘째, 부가가치유발승수는 한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효과를 나타내며 예를 들어 부가가치승수효과가 0.48596이라는 의미는 1백만원이 소비될 때마다 485,960원의 부가가치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수입유발승수는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하였을 때 각 산업부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 산업에 파급시킨 직·간접 수입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수입유발승수가 0.01573이라는 의미는 1백만원이 소비될 때마다 직·간접 효과를 통해 15,730원의 수입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넷째, 취업유발승수 또는 고용유발승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적인 고용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고용유발효과가 0.01939라는 의미는 10억원이 소비될 때마다 직·간접 효과로 인하여 19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소득유발승수는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하였을 때, 각 산업부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 산업에 파급시킨 직·간접 소득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소득유발승수가 0.21936이라는 의미는 1백만원이 소비될 때마다 직·간접 효과를 통하여 219,360원의 수입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간접세유발승수는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하였을 때 각 산업부문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 산업에 파급시킨 직·간접 세수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세수효과가 0.06330이라는 의미는 1백만원이 소비될 때마다 직·간접 효과를 통해 63,300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제 3절 2013년 이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 2013년 지역경제 직접파급효과(Meeting & Convention)

회의 유형별로 내. 외국인들의 지출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며, 그 분류로는 공공/정부회의, 기업회의, 학회/협회회의, 기타회의로 구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유형별로 내. 외국인별로 지출하는 소비액과 참가자 수를 기초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아래표(표 4-4)와 같다.

(표 4-4)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1인당 지출	규모	구분		인원	1인당 지출	규모
공공 / 정부	외국인	16	2,545	40,720	기타	외국인	1,942	2,786	5,410,412
	내국인	2,388	941	2,247,108		내국인	8,499	2,482	21,094,518
	공급	80	197	15,760		공급	815	145	118,175
	총	2,484		2,303,588		총	11,256		26,623,105

구분		인원	1인당 지출	규모	구분		인원	1인당 지출	규모
기업	외국인	291	610	177,510	학회 / 협회	외국인	6,502	2,731	17,756,962
	내국인	2,712	490	1,328,880		내국인	24,601	1,456	35,819,056
	공급	128	112	14,336		공급	1,436	149	213,964
	총	3,131		1,520,726		총	32,539		53,789,982

2. 2013년 지역경제 직접파급효과(Incentive)

(표 4-5)

구분		인원	1인당지출(천원)	규모(천원)
Incentive	외국인	2,630	1,187	3,121,810
	내국인	350	-	-
	공급	203	778	157,934
	총	1,067		3,279,744

3. 2013년 지역경제 직접과급효과(표 4-6)

구분	규모(천원)	비고
공공/정부	2,303,588	
기업	1,520,726	
학회/협회	53,789,982	
인센티브	3,279,744	
기타	26,623,105	
직접과급효과 합계	87,517,145	

4. 2013년 지역경제 총과급효과(Meeting & Convention)

(표 4-7)

구분		금액(천원)	비고
직접생산효과	A	84,237,401	참가자 지출+주최자 지출
생산유발효과	B	94,802,455	. B = A x 1.12542
소득유발효과	C	19,379,656	. C = A x 0.23006
부가가치유발효과	D	45,110,813	. D = A x 0.53552
수입유발효과	E	1,546,599	. E = A x 0.01836
간접세유발효과	F	5,517,550	. F = A X 0.06550
고용유발효과	G	1,451,410	. G = A X 0.01723
금액 총계		166,357,073	. 고용창출효과(인원)제외

※ 자료출처 : 제주컨벤션뷰로(JCVB) 2012년 8월 용역 “제주지역 MICE산업 경제적과급효과 추정 연구”

5. 2013년 지역경제 총과급효과(Incentive) (표 4-8)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직접생산효과	A	3,279,744	참가자 지출+주최자 지출
생산유발효과	B	3,555,341	. $B = A \times 1.08403$
소득유발효과	C	719,445	. $C = A \times 0.21936$
부가가치유발효과	D	1,593,824	. $D = A \times 0.48596$
수입유발효과	E	51,590	. $E = A \times 0.01573$
간접세유발효과	F	207,607	. $F = A \times 0.06330$
고용유발효과	G	63,594	. $G = A \times 0.01939$
금액 총계		6,127,807	. 고용창출효과(인원)제외

※ 자료출처 : 제주컨벤션뷰로(JCVB) 2012년 8월 용역 “제주지역 MICE산업 경제적
과급효과 추정 연구”

6. 2013년 지역경제 총과급효과

(표 4-9)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Meeting & Convention	생산유발효과	94,802,455	
	소득유발효과	19,379,656	
	부가가치유발효과	45,110,813	
	수입유발효과	1,546,599	
	간접세유발효과	5,517,550	
	소계	166,357,073	
Incentive	생산유발효과	3,555,341	
	소득유발효과	719,445	
	부가가치유발효과	1,593,824	
	수입유발효과	51,590	
	간접세유발효과	207,607	
	소계	6,127,807	
총과급효과		172,484,880	

* 2013년 지역경제과급효과

① 직접생산효과 (MnC + Incentive) : 875억원

② 총 과급효과 (MnC + Incentive) : 1,725억원

7. ICC JEJU 개관이후 행사개최 실적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표 4-10)

년도별	행사 개최건수 (국제회의)	행사 매출액 (백만원)	총참가자수(명)			지역경제파급효과	
			총인원	도 외 내국인	외국인	직접 생산효과	총파급효과
계	3,043건(308)	24,216	2,126,494	589,635	173,807	8,573	18,767
2003년	82건(10)	835	94,884	32,568	3,341	279	636
2004년	114건(9)	1,890	198,178	48,083	9,467	522	1,191
2005년	268건(13)	1,553	228,012	81,074	10,132	739	1,686
2006년	234건(18)	2,013	200,169	61,371	19,214	840	1,916
2007년	194건(19)	2,000	103,805	39,297	10,866	503	1,147
2008년	243건(27)	1,800	119,682	43,512	12,342	564	1,287
2009년	282건(24)	1,930	124,110	35,818	17,277	637	1,454
2010년	278건(40)	1,427	152,493	59,151	10,308	610	1,391
2011년	297건(32)	1,522	174,826	32,663	21,271	715	1,632
2012년	255건(20)	2,633	122,385	30,974	17,497	613	1,399
2013년	267건(33)	1,991	139,484	38,550	11,381	875	1,725
2014년	264건(27)	2,155	195,352	35,268	14,702	825	1,616
2015년	265건(36)	2,467	273,114	51,306	16,009	851	1,687

• ‘03년~’14년까지 기준

- 회의매출액 242억원, 직접생산효과 8,573억원, 총 파급효과 18,767억원

제 6장 제주 MICE 발전을 위한 ICC JEJU의 역할 및 향후방향

제 1절 제주의 MICE 시장 및 해외사례

1. 입지현황

제주의 MICE 환경은 자연환경, 숙박 및 교통, 각종 시설 등을 감안할 경우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주도의 입지조건을 보면 한라산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 작음에도 다양한 기후를 갖추고 있고 또한 360여개의 오름군락을 비롯한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청정 환경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ICC JEJU는 공항에서 차량으로 50여분 소요되면 주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숙박시설, 이 밖에도 도로 포장율 전국 1위, 편리한 교통체계 등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사회간접시설을 포함한 하드웨어는 모두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회의의 규모는 대형화 추세에 있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2의 컨벤션시설 증축이 필수적이다. 대형컨벤션 시설뿐만 아니라 숙박 및 위락시설의 대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이 증축되지 않는 한 MICE 발전은 한계성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현재 ICC JEJU 주변으로 부영주택 부지 2만여평, CK월드 부지 8천여평이 당초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제 2의 컨벤션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지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부지확보가 필수적이다.

2. 싱가포르 사례

아시아국 국제회의 개최 1위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시설의 대형화 및 회의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주변상권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실 싱가포르의 입지적 환경을 분석해보면 좁은 국토, 4계절 무더운 날씨, 관광자원의 부재 등을 고려할 경우 국제회의 도시로서는 유인책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현재의 싱가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주의 MICE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국가적 차원에서 MICE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1974년 비영리특수법인인 Singapore Exhibition & Convention Bureau(SECB)를 싱가포르 관광청 산하 관광마케팅국의 한 부서로 설립, 국가적 차원에서 컨벤션 및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SECB의 4대 핵심 업무로는 첫째 기업행사 유치에 있다. 이는 각종 컨벤션 및 전시행사를 성장, 발전시키고 각종 기업 인센티브를 유치해 싱가포르의 MICE 환경 위상을 강화하고 있고,

둘째, MICE 산업개발로서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싱가폴은 “비즈니스 MICE 지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글로벌 마케터로서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넷째, 체험상품 개발로서 각종 비즈니스 및 MICE 참가자들을 위한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관광업체 및 유관분야 종사자 관계자들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관계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전 세계 170여개 도시를 잇는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운항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최대 3만6천명까지 수용 가능한 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주요 시설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1)

구분	Marina Bay Sands	Resort World at Sentosa
설립회사	Las Vegas Sands Crop (USD 5.5billion)	Genting Singapore PLC (USD 4.4billion)
주요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시설 120,000m² (45,000명, 전시부스 2,000개) . 회의시설 : 회의실 250개, 오디토리움 11,000석 . 숙박시설 : 럭셔리 & 스위트룸 포함 2,500여개 룸 . 편의시설 : 카지노, 쇼핑몰, 박물관, 영화관, 수영장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면적 32,370m² . 편의시설 : 카지노, 워터파크, 해양박물관, 아쿠아리움 등

이 외에도 싱가포르에는 다국적 기업이 7천 개 이상이며, 이 중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 기업만도 7천개가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과, 생물, 의학, 전자공학, 정밀공학 같은 미래성장 산업의 고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개방적인 정책이 진취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혁신기술을 창조하는 오늘의 싱가포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중국, 인도 및 인근 국가들과의 잇는 이점으로 많은 나라의 국제 전문가들이 대거 활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리적인 접근성, 영어사용환경, 도시의 청결성, 치안의 안정성 등 컨벤션 개최지로서의 최적의 조건들과 세계적 명성, 유구한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 쇼핑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컨벤션시설 부문으로는 최신 미팅 & 컨벤션 시설, 최소 만여 개의 호텔 룸과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싱가폴은 컨벤션산업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싱가폴에서 각종 비즈니스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관광개발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5% 이상을 관련 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자금 중 대부분은 기업회의나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전시업무를 기획하는 인센티브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에게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제 2절 제주의 MICE 발전을 위한 ICC JEJU의 역할

1. 경쟁력을 갖춘 환경개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회의 개최를 자랑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제주의 MICE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제주에는 국제회의 전문시설이 ICC JEJU가 있지만 현재의 시설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우기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한 경쟁도시인 경우 전시 컨벤션시설을 대규모로 증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ICC JEJU인 경우는 대규모 행사 시 대규모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토지 및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 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형행사를 유치하려고 해도 그 행사규모에 맞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증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컨벤션뷰로 역할의 재정립

현재 사단법인 형태인 컨벤션뷰로(JCVB)는 제주관광공사의 일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JCVB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미 제주관광협회라는 조직에서 회원사 관리와 제주관광을 위한 홍보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지만 뒤늦게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당초 JCVB 설립 시 ICC JEJU의 조직으로 운영하다가 제주관광공사로 이관함에 따른 컨벤션 마케팅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제주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간의 조직의 명확한 재정립과 함께 JCVB를 ICC JEJU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MICE 환경을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ICC JEJU의 재무문제 해소

ICC JEJU는 2003년 설립당시부터 적자구조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2015년 누적결손금이 162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것도 2014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상당부분 결손액을 자산재평가차익(약 264억원)을 통하여 해소하고도 현재까지 결손금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며 그 원인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우선 ICC JEJU의 최근 5개년 손익계산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5개년 요약손익계산서(표 5-1)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7,304	12,842	10,054	10,902	11,942
매출원가	3,506	6,946	5,137	5,443	6,117
매출총이익	3,798	5,896	4,917	5,459	5,825
관관비	7,790	8,319	8,310	8,252	7,890
영업손익	-3,992	-2,423	-3,393	-2,793	-2,065
영업외수입	2,634	2,262	1,782	1,887	1,530
영업외비용	2,291	1,385	690	636	412
당기손익	-3,649	-1,546	-2,301	-1,542	-947

이미 제 5장 ICC JEJU 재무성과 분석에서 거론 했지만 ICC JEJU는 매년 경영실적은 호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익사업을 통한 경영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설립 이후 매년 31억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상 되었으나 2014년 자산재평가를 통한 내용연수 증가로 약 28억원의 감가상각를 계상하고 있으며,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으로 다행히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효과로 추가차입 없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근본적인 적자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하겠다.

4. 수익사업 추진

ICC JEJU의 만성적인 적자원인은 간단하다. 당초 ICC JEJU를 설립하면서 계획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ICC JEJU는 시설물을 활용한 회의실 임대료와 케이터링 사업, PCO 사업 이외에는 전혀 수익원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ICC JEJU 설립당시 제기되었던 사항이다. 당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ICC JEJU 설립과정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흑자를 시현하는 컨벤션센터는 없다고 이미

조사가 된 사실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로서의 기능과 제주도민의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제기 되었고 그 수익사업으로 면세점, 카지노, 한라산 케이블카 등을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설립당시 정관에도 목적사업으로 포함을 시켰던 사항이다.

그러나 면세점은 제주도와는 무관하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함으로써 계획된 면세점 사업이 무산 되었고 카지노 역시 도민들의 정서 및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최근에는 제주관광공사가 설립하면서 시내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한라산 케이블카 역시 환경단체 들의 찬반대립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당초 계획된 수익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경영수지는 악화되고 매년 자본은 잠식상태에 있으며, 뚜렷한 수익사업 전망이 불투명 한 상태에서 제주의 MICE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제주의 MICE 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초 계획된 수익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주식회사인 ICC JEJU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ICC JEJU 설립 주최자이다 대주주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제 3절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영개선

1. 내국인 면세점 운영

현재 ICC JEJU는 별도의 수익사업 또는 대대적인 조직변화 없이 만성적인 적자를 탈피하기는 어렵다. ICC JEJU 시설물을 100%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수입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사업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MICE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물론 정관상 목적사업이면서 당초 설립 시 계획된 카지노, 면세점 등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카지노는 찬반 대립의 심화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고 면세점 운영에 대한 방향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경영정상화 방안은 찾고자 한다.

첫째,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제주관광공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을 운영(현재 롯데호텔 내에서 운영하고 있음)하고 ICC JEJU 1층 면세점은 ICC JEJU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당초 목적사업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제주의 MICE 산업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ICC JEJU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도민주)에게 배당을 통한 당초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 또한 ICC JEJU가 운영해야 한다는 설득력도 충분하다. 당초 설립당시 계획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ICC JEJU의 민간주들은 도민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점을 통한 수익이 지역으로 자동 환원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ICC JEJU가 면세점을 운영할 경우 회의 참가고객을 대상으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다.

2. 앵카호텔 운영을 통한 사업다각화 실현

ICC JEJU 앵카호텔은 수년간 외자유치, 국내 투자자를 통한 신탁회사 등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건축 중인 호텔을 부영주택에서 인수하여 최근에 개점하였다. 문제는 부영주택에서 호텔사업을 계속할 경우 장기적으로 ICC JEJU와 WIN WIN이 아닌 과당경쟁으로 돌입할 경우 오히려 MICE 산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이는 대구의 사례인 EXCO와 인터볼고 호텔의 경우를 보더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부영주택은 ICC JEJU의 일본(동경, 오사카)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에 이어

세번째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체제가 아닌 협력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CC JEJU가 조직을 확대하여 호텔을 위탁경영하는 방법이다. ICC JEJU는 향후 5년, 10년 후의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ICC JEJU에서 앵카호텔을 운영할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부영주택은 호텔경영으로 인한 적자운영을 탈피함은 물론, 위탁수수료를 통하여 본연의 주택사업과 호텔사업을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의 조직 통폐합

제주의 지하수 자원은 제주도민의 공동 재산이다. 따라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ICC JEJU 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57.02%인 과반수 이상 투자가 된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ICC JEJU가 제주지역 경제의 인프라 시설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ICC JEJU간 조직을 통폐합하여 운영할 경우 제주의 MICE 산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절 ICC JEJU의 자구노력

1. 정부의 MICE 용. 복합 육성방안 정책과 공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 등 유치방안 추진으로 202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창조관광 및 레저, 의료, 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ICC JEJU에서도 MICE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즉, 제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회의 참가자들에게 골프 및 레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2. 제주지역 특화사업 육성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한 제주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지역내 잠재력 있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풍력과 식품융합, MICE등 분야에 연 1천 7억원이 국비를 지원할 것이며, 휴양관광, 국제행사 등을 제주로 유치해 동북아 MICE 거점도시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해외 대기업 인센티브 관광 유치활동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회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겠다.

3. MICE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수립

제주도는 다양한 숙박시설, 공항, 항만, 도로, 전문 국제회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MICE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MICE산업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가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행사 유치, 중화권 시장 및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대규모 Incentive Tour유치를 위하여 북경, 상해를 포함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사무실을 개설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러나 Exhibition인 경우는 입지조건상 물류비 등의 과다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대규모 전시장이 구비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전시산업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제 2의 컨벤션시설이 필요한 것이며, 전시장 규모 및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전시기획 상품(말산업, 실버산업, 의료 및 골프산업 등)을 개발해야 하겠다.

또한 Event 사업은 2010년 제주아트센터의 개관이후 활성화 되고 있으며, 또한

도민들의 문화수준 향상, 들불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 등으로 이벤트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ICC JEJU 탐라홀을 활용한 각종 공연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수기를 타개할 다양한 이벤트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제 7장 결론

제 1절 ICC JEJU의 향후과제

1. 제주의 MICE 발전을 향후방향

제주도는 MICE 환경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 뿐만 아니라 청정이미지, 세계 7대 자연유산,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자원, 풍부한 지하수, 다양한 기후 등의 자연환경이 구비되어 MICE산업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Event) 산업은 점차 활성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장속도는 여전히 느린 편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시설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설적인 측면으로 공항시설의 포화상태와 현재의 ICC JEJU 시설로는 대규모 행사에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 2의 공항시설과 컨벤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MICE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액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행정적 지원 폭을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 이외에 대규모 인센티브 투여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전개, 해외 사무소를 통한 시장개척 등이 필요하다.

2. 연구의 의의

끝으로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제주지역의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 회의시설인 ICC JEJU가 제 기능을 다하고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제 2컨벤션시설의 필요성과 무엇보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만성적자를 우선적으로 탈피해야함을 강조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연의 회의산업 이외에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 2절 시사점

ICC JEJU가 2003년 개관이후 ICC JEJU를 중심으로 한 제주의 MICE 산업을 분석해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관광객 증가로 인한 호텔 및 숙박업의 증가, 박물관, 음식점 등이 큰 폭으로 증가 되어 개관 이후 2014년까지 11년간 제주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직접파급효과 8,573억원원, 간접파급효과 1조8,767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ICC JEJU를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이끌어내는 사회간접시설로서 공공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또한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즉, 착한 적자기업으로의 이미지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우선 각종 평가지표에서 단순한 손익구조에 의한 평가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기여도가 우선적으로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감사(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 적발감사의 시각에서 탈피하고 MICE 발전을 위한 컨설팅 개념으로의 감사방향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학계, 언론에서의 꾸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주주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재탄생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제주지역 MICE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연구 2012 제주컨벤션뷰로
- 한국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2012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국제회의, 전시, 이벤트 산업의 이슈와 발전전략.
2005 (사)한국컨벤션, 이벤트 산업협회
-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제주 컨벤션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